



7월 2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7.9	7.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47.14	1,420.27	↓ -5.15	↑ 22.04	785.17 '20/07/27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039.84	6,023.01	↑ 0.28	↑ 1.02	4,842.76 '20/09/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2,386.19	52,484.67	↓ -0.19	↑ 9.71	36,033.06 '20/07/14	53,054.76 '21/07/07
중국	상해종합	3,524.09	3,518.76	↑ 0.15	↑ 1.47	3,196.77 '20/07/24	3,696.17 '21/02/19
	심천종합	2,436.84	2,396.78	↑ 1.67	↑ 4.61	2,126.88 '20/09/28	2,468.66 '21/02/19
홍콩	H	9,885.42	10,415.58	↓ -5.09	↓ -7.94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7,344.54	28,310.42	↓ -3.41	↑ 0.42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217.95	3,281.78	↓ -1.94	↑ 11.99	2,150.25 '20/07/10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7.9	7.2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9	2.21	↓ -2.40	↓ -39.00	2.16 '21/01/19	3.10 '20/07/29
인도네시아	6.56	6.59	↓ -2.70	↑ 67.30	5.89 '20/12/30	7.10 '20/07/09
인도	6.19	6.07	↑ 12.10	↑ 32.10	5.76 '20/07/10	6.25 '21/03/10
중국	3.00	3.08	↓ -8.40	↓ -14.80	2.87 '20/07/24	3.36 '20/11/19
한국	2.04	2.11	↓ -7.00	↑ 31.30	1.28 '20/07/30	2.20 '21/06/02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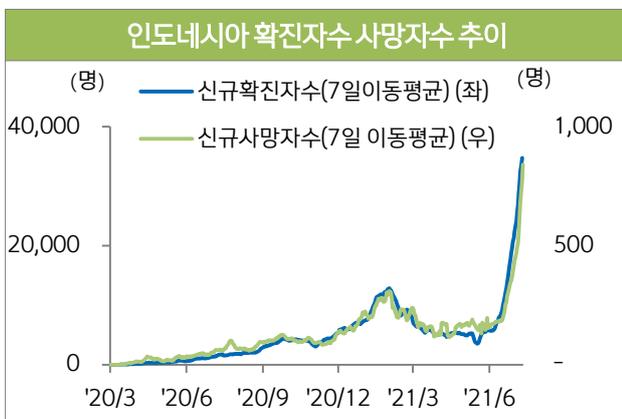
구분	7.9	7.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992.00	22,997.00	↓ -0.02	↓ -0.46	22,944.00 '21/06/11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528.00	14,533.00	↓ -0.03	↑ 3.40	13,895.00 '21/01/04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4.64	74.75	↓ -0.15	↑ 2.15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48	6.47	↑ 0.09	↓ -0.74	6.37 '21/05/28	7.02 '20/07/24
달러-원 (KRW)	1,148.85	1,134.82	↑ 1.24	↑ 5.74	1,081.81 '20/12/04	1,205.68 '20/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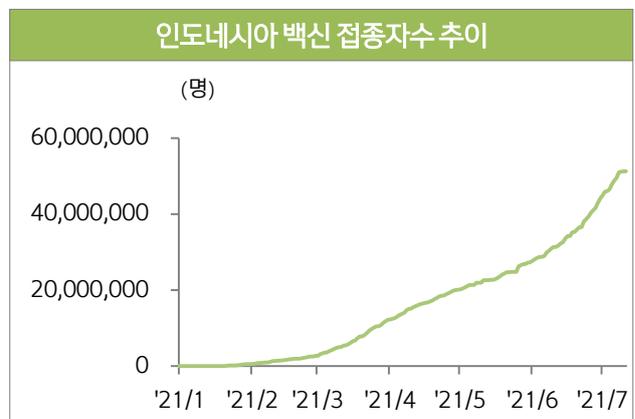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코로나 19 델타변이로 인한 확진자수 급증으로 경제 회복 경로에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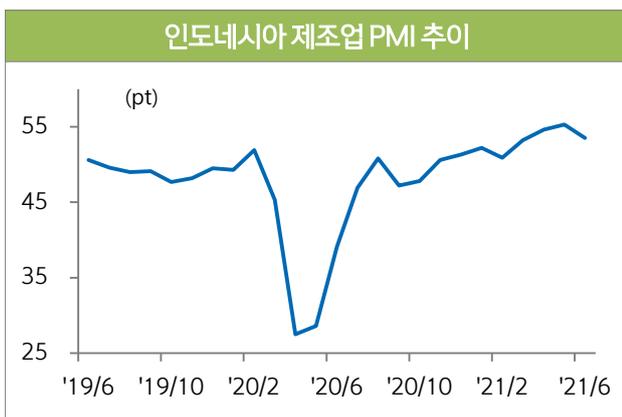
- 6월 중순 이후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3분기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1일 확진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3.5만명을 넘어섰으며, 1일 사망자수는 1,000명을 넘어지고 있음. 미국과 영국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가는 국가에서는 신규 확진자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신규사망자수는 증가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확진자수와 사망자수의 증가 양상이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5천만명을 넘어섰고 있지만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도 델타변이에 의한 확진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산 시노박 백신을 접종한 것이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낚고 있는 상황. **확진자수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으로 자바와 발리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다시 경제활동 및 소비 등의 제약이 나타나고 있음.**
- 6월 제조업 PMI가 53.5pt로 5월의 55.3pt에서 하락하였는데 이는 6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가 나타난 것과 함께 주요 수출 대상국가인 중국의 PMI가 하락하면서 중국의 긴축 흐름이 경기 피크아웃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반면,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07.4pt로 전월의 104.4pt보다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의 확진자수 증가 흐름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재차 기준치인 100pt를 하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확진자수의 통제 여부에 따라 8월 말까지 현재의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소비, 투자가 부진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정부가 올해 5%대 성장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면서 추가 부양 조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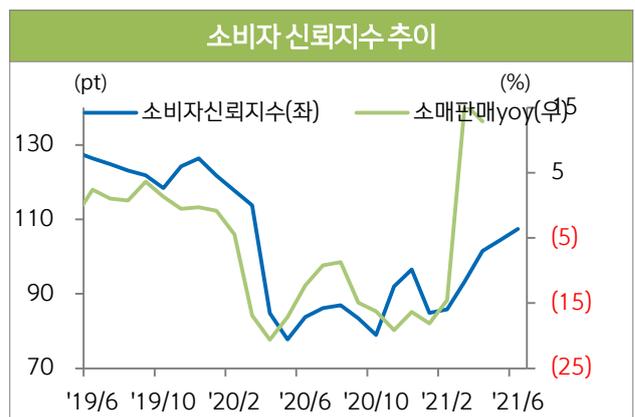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주요 뉴스





인니 의회, 정부에 2021년 4% 성장 달성 방안 모색 요청



❖ 요약 및 시사점

2022년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예산위원회 부의장은 올해 성장률이 4%에 못 미칠 경우 내년도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장 둔화는 재정 수입 부진으로 연결되어 경기 부양용 지출도 제약하기 때문에 성장률 달성을 위해 방역 및 예방접종의 가속화 등 조치를 요청하였음

- 인도네시아 의회 예산 위원회 Muhidin Mohamad Said 부의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2022년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 4% 성장을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하였음. 올해 성장률이 3% 미만을 기록할 경우에 2022년 5%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든 4%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올해 4% 성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Said 부의장은 백신 접종 가속화를 언급하였음.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여서 코로나19 확진자수의 증가를 낮추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음. 이러한 노력은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병상이 모자라는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상황임.
- Said 부의장은 2021년 1분기 까지의 경제 및 산업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난주부터 발생한 코로나19 3차 확산의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하였음. 이를 위해 1일 백신 접종을 130만 회까지 늘려야 한다고 하였음.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명률을 낮출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정부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늘려야 한다고 하였음
- 부의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재정 정책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재정의 낭비로 인한 부채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고 하였음. 부의장은 2022년 재정 수입이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내년까지는 국가 회복을 위해서 국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성장률이 개선되어야 재정 수입도 그에 맞춰 늘어나서 재정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이를 전제하면서 내년 재정 지출이 목표대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어서 국가 경제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이 경기 방어적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재무부 장관, 올해 성장률 전망 3.7~4.5%로 전망치 조정



❖ 요약 및 시사점

재무장관은 기존 성장률 전망대비 하향한 수치로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범위를 제시하였음. 7월부터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의 이동과 경제활동이 제약된 것이 성장률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면서 확진자수 증가세가 조기에 진정되어야 3분기에 전년대비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자바와 발리 지역에서 취해진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PPKM)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7~4.5% 범위내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치를 발표하였음.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상하고 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5~5.3% 범위였지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하향 조정하게 되었음.
-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세가 7월 2째주 정도에서 잦아든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8월 첫주 정도에 해제하고서 8월 중순부터는 경제 활동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온건한 시나리오이며, 이 시나리오에서는 3분기에 5.4%, 4분기에 5.9%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5%대 성장률로의 회귀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7월 2주차의 일일 확진자수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대중 이동이 50% 미만으로 제한될 경우에는 8월 3주 이후에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9월이나 되어야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을 보이면서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았음. 이 경우 3분기의 성장률은 전년대비 4.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재무장관은 2분기 성장률이 전년대비 7% 이상 성장을 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인니정부, 3분기 성장률 전망을 3.7~4% 범위로 하향 조정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지역인 자바와 발리 지역에서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의한 확진자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3분기 성장률 전망을 3.7~4% 범위로 하향 조정하였음. 소비, 투자가 다시 부진한 흐름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수출 정도만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제 조정부 장관은 자바와 발리 지역에 발동된 긴급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3분기 성장률 전망을 3.7~4% 범위로 하향 조정한다고 말하였음. 자바와 발리 지역이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에서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긴급 공공활동 제한 조치(PPKM)이 발동되면서 3분기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임.
- 장관은 3분기 성장 동력은 수출이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하게 팜원유, 석탄, 고무,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음.
- 한편, 경제개혁센터(CORE)의 Yusuf Rendy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자바, 발리 지역에 취해진 조치로 인해서 3분기에 4%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경제개혁센터에서는 2분기에도 4% 성장에 그칠 것이며, 3분기에는 이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PPKM으로 인해서 대중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소비가 제약되고,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부분인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이유임. 이러한 소비의 부진 예상으로 투자 부문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PPKM으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조치가 이뤄져야 부담을 완화하면서 소비가 지속될 것이라고 조언하였음.



인니정부, 경제 회복 예산 추가 편성 검토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자바, 발리 지역의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지원 예산과 별도로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의 예산을 다른 예산 변경 등을 통해 증액 하여서 중소기업, 근로자, 사회보장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음.

- 인도네시아 Ma'ruf Amin 부통령은 국가 경제 회복(PEN) 프로그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하였음. 추가 편성되는 예산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유지시켜주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슈를 대응하는 목적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예산 마련은 정부 지출 사안의 변경이나 재조정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하였음.
- 경제 회복 예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보조 지원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도 하였음. 가족 희망 프로그램(PKH), 비현금 식료품 보조프로그램(BPNT), 현금지원 원조(BLT)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서 일정과 대상자들을 조율할 것이라고 하였음. 직업 훈련과 취업 교육 또한 정부가 Pre-Employment Card 프로그램과 직무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상태에 처한 근로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시골 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 근로자와 특산품들에 대한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음.
- 앞서 경제 조정 장관은 국가 경제 회복 예산 추가 소요분이 225.4조 루피아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금액은 자바와 발리 지역에서의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PPKM) 이행에 따른 지원조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음. 해당 예산에는 보건 지출 120.72조 루피아, 최우선 지원 프로그램 10.89조 루피아, 사회보장 28.7조 루피아, 사업 지원 15.1조 루피아, 중소기업 지원 50.04조 루피아가 포함되어 있었음.



재무부, 보건 예산 193조 루피아로 확대 편성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음. 예산 증액을 통해서 코로나19 검사 및 추적 관리 등을 늘리고 백신 접종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에 사용하기로 하였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관련된 보건 예산을 기존 182조 루피아에서 193조 루피아로 증액한다고 발표하였음. 코로나19 대응 및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보건 예산은 당초에 172조 루피아로 편성되었었지만 연초에 182조 루피아로 증액되었던 바 있었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다시금 자바와 발리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 예산을 추가로 증액할 수 밖에 없었음.
- 증액 되는 예산은 코로나19 검사, 추적 및 환자 대응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일정 부분은 사회적거리두기(PPKM)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사회 보장 예산으로도 집행될 것이라고 재무 장관은 말하였음. 또한 일부 예산은 보건 인력들에 대한 지원, 사망자에 대한 보상, 보건용품 구입용 지출 등에도 사용될 예정임.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지원에도 편성되었음. 이를 통해 5,390만 도즈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쓰이고, 1,915만 시민들의 국가 건강보험 제도 편성에도 사용될 예정임



46개국이 인도네시아의 재외국민 세금 징수 협력



❖ 요약 및 시사점

해외 국민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해 기존에 여러 나라들과 협약을 맺어져 있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세법 상의 기준 부재로 협약을 맺은 국가에 징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법을 마련하고 해외 국가에 징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였음

- 최소 46개 파트너 국가들이 세법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징수를 검토하고 있는 해외 세금 납부 대상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 지원을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재무부 관료가 의회에서 발표하였음. 일단 13개 이중 세금 징수 면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여기에 다른 나라들, 다른 방법들로 방안이 추가될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가 이중 과세 면제 조약을 맺은 국가들은 알제리, 미국, 아르메니아, 네덜란드, 벨피아, 필리핀, 인도, 라오스, 이집트, 수리남, 요르단,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임
- Utomo 국장은 141개 국가가 세금 문제와 관련한 다국적 행정 지원 컨벤션(MAC)에 서명하였으며, 46개의 파트너 국가들이 상호간에 세금 징수에 대한 것을 협력하기로 되어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법적인 기반이 없이는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이라고 하였음. 그렇기때문에, 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맺은 협약을 발동시켜서 징수 작업의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하였음.



무역부 장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



❖ 요약 및 시사점

무역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하였음

- 무역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며, 사람들이 더 많이 경제 활동과 거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고 하였음.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지만, 국제 무역에서 점점 주요 논의 주제가 되고 있으며 장래에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무역 관련 협상에서 중요한 논의 대상이라고 하였음.
- 2020년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거래 규모는 632조 루피아에 달했다고 말하면서, 2030년까지 이러한 디지털 경제가 8배 가량 커져서 4,531조 루피아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이 가운데 전자 상거래가 차지하는 것이 1,908조 루피아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할 것이며, 관광 서비스 부문이 575조 루피아,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부문이 192조 루피아, 승차 공유 및 온라인 운송이 401조 루피아, 핀테크가 224조 루피아 등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여전히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고도 평가하였음. 5G 네트워크, 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분야 등 디지털 경제의 향후 방향을 이끌 주요 기술 부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도입 및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최신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대규모 ICT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인적 자원도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딩 학습기관 설치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내 인력들의 디지털 역량을 육성하고 있다고도 하였음.